

보도시점 2026.5.20.(수), 배포 즉시 배포 2026.5.20.(수), 07:00

해외에서 라면 10봉 더 팔릴 때 2봉은 K-팝·드라마 덕분

- K-푸드·뷰티 수출 증가의 13%, 방한관광객 증가의 31%는 “한류 영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추정 방안 연구」 발간...행정데이터 기반 한류지표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황교익, 이하 '문광연')은 한류가 연관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거래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영상·음악 콘텐츠의 수출액 기반 한류지표를 개발해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간 연관소비재 수출 증가의 13.14%(농산식품 20.77%, 수산식품 16.21%, 화장품 7.19%), 방한 관광객 증가의 30.79%가 한류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주요 연관 산업 수출 성장에 대한 한류 기여율

구분	연관 소비재	농산식품	수산식품	화장품	방한 관광객 수
전체	13.14%	20.77%	16.21%	7.19%	30.79%

지역별로는 북미·아시아 지역에서 한류가 연관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한 반면, 유럽·기타 지역에서는 그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해 한류 소비 기반이 두터운 국가일수록 한국 상품 수출도 구조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한류의 효과가 단기적 반짝 현상에 그치지 않는다는 실증적 근거가 제시됐다는 것이다. 시차분포 분석 결과, 한류의 영향은 '인지 → 고려 → 구매 → 반복 구매'의 누적 경로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구조임이 확인됐다. 이는 한류가 단순한 문화 이벤트를 넘어 소비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경제적 힘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를 이끈 이용관 한류경제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설문·검색량 등에 의존해 일관된 측정이 어려웠던 기존 한류동향 파악의 한계를 넘어 행정데이터 기반 한류지표를 개발, 한류의 흐름과 경제적 효과를 일관되고 적시성 있게 추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황교익 원장은 “한류 효과가 평균 1년여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 2년 이상 지속되는 만큼, 한류 정책은 중장기 누적 효과 관점에서 기획·평가되어야 한다”며 “나아가 콘텐츠 확산 정책과 푸드·뷰티 등 연관 산업 수출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증거 기반의 정책 평가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 「한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 추정 방안 연구」 전문은 문광연 누리집 (www.kct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별첨 : 웹저널 KCTI 인사이드 「한류, 연관 산업 수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담당 부서	콘텐츠연구본부 한류경제연구센터	책임자	한류경제연구센터장	이용관 (02-2669-6915)
		담당자	부연구위원	이승희 (02-2669-8449)
홍보 부서	기획조정실 성과확산팀	책임자	성과확산팀장	배고은 (02-2669-9820)
		담당자	차석행정원	김연아 (02-2669-9831)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연구본부 한류경제연구센터 이용관 센터장(☎ 02-2669-6915)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